



10대를 위한 글로벌 사회탐구

도대체 극단주의가 뭐야?

안야 러임쉬셀 지음, 김완균 옮김, 이시내 그림, 해제 구정은
204쪽/ 반양장/ 147*210/ 값 13,000원/ 연령 14세 이상
ISBN 978-89-491-5298-1 44330/ 발행일 2020년 4월 24일

★ 2019 독일청소년문학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 ★

세계 정치사회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극단주의' 입문서

극단주의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저절로 민주주의에 한 표를 던지게 만든다.

- 독일아동청소년문학상 심사평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극단주의 현상을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 구정은 《경향신문》 기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신뢰도 높은 책이다.

- 박재열, 봉일천고등학교 사회 교사

2019년 독일청소년문학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 『도대체 극단주의가 뭐야?』가 출간되었다. 코로나 19로 백인 극단주의자들의 아시안 혐오와 테러가 세계적 이슈인 지금, 극단주의의 A부터 Z까지 제대로 알려 주고자 마련되었다.

『도대체 극단주의가 뭐야?』는 '위험한 존재'로 어렵듯하게만 알고 있는 '극단주의'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국내 최초 '극단주의' 청소년 책이다. 완벽한 세상을 꿈꾸며 세계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고 맞서야 한다는 독일 저널리스트 안야 러임쉬셀의 강한 의지로 탄생했다. 극단주의의 개념 정리에서 시작해 극단주의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극단주의의 위험에서 지켜 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답을 찾아나간다. 특별히 한국어판에는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돕는 그림과 현실감을 더하는 사진을 넣어, 보는 맛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한 한국의 사례를 넣은 '우리가 만나는 극단주의는?' 해제를 부록으로 실었다.

세계적인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기초 배경지식을 전달하는 '10대를 위한 글로벌 사회탐구'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극단주의가 세계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왜?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진 극단주의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본다!

『도대체 극단주의가 뭐야?』는 전쟁과 폭탄테러부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이르기까지, 극단주의의 여러 형태를 보여 주는 탄탄한 정치사회 교양서이다. “극단적’인 것과 ‘극단주의적’인 것은 뭐가 다를까?’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는 다각적인 개념 정리부터 극우 극좌와 같은 정치 극단주의, 이슬람주의 같은 종교 극단주의까지 일목요연하게 훑는다. 그리고 나서 극단주의에 대처하는 국가적 노력, 개인의 역할을 정리한다.

저자 안야 리임쉬셀은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극단주의자들을 취재해 왔으며,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극단주의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와 2011년 노르웨이 연쇄 테러 등의 세계 주요 사건은 물론, 극단주의에 빠진 개인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서술해 펼쳐 냈다. 이슬람주의에 빠져 IS(이슬람국가)로 떠난 10대 독일 소녀 린다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신나치 조직에 가입한 10대 소년 마티아스가 어떻게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게 해 준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간 중간 ‘생각해 보기’ 코너를 통해 ‘극단주의’의 다른 얼굴을 꺼내 보인다. 폭력적으로 보이는 극우주의자의 뒤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것, 극좌주의자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비판에는 우리가 새겨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등을 말하며, “극단주의자는 사회의 병든 곳을 일러 주는 ‘사회의 온도계’이며 “가능한 한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민주사회의 책임”이라면서 극단주의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기를 권한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극우’ ‘이슬람주의’ ‘테러’ 같은 정치사회 주제에 관한 정보들은 서로 모순적이고 혼란만 더한다. 제대로 된 식견을 갖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추천사를 쓴 박재열 봉일천고 교사의 말처럼 “신뢰도 높은 책”이다.

우리는 과연 극단주의의 위협에서 자유로울까?

증오와 혐오 대신 더 많은 민주주의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책

어떤 청소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화’를 욕으로 쓰며 외국인 혐오 문화를 조장하고 선동한다. 또 어떤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를 버리고 배타적인 종교 공동체에 빠진다. 이렇듯 사회문제로 불러 올라오는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태도에 무작정 비판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분쟁과 테러에 대해 기사를 써 온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는 해제 ‘우리가 만나는 극단주의는?’을 통해 난민과 외국인 혐오 등 우리나라에서도 고개를 드는 극단주의의 위험한 징후들을 이 책의 내용과 연결해 하나하나 짚어 주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 민주화 투쟁을 깎아 내리고 여성과 소수자에게 폭력을 부추기는 ‘일베’ 유저들, 특정 지역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버이연합’…… 이 책에 등장한 극단주의자들과 놀라게도 비슷한 양상을 가리키며, 생각이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일부 세태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극단주의자들처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사회 전체를 옥죄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

고 극단주의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민주주의 교육'에 있다는 저자 안야 러임쉬셀과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국 우리에게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은 청소년들은 우리가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깨달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 힘오와 증오를 경계하는 한 명의 행동이 극단주의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차례

추천의 글

들어가는 말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는 사람들

1장 극단주의란 무엇일까?

극단주의 개념에 대하여/ 극단주의와 급진주의의 차이/ 극단주의자들의 공통점/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극단주의는 어떻게 생겨날까?/ 극단주의가 위험한 이유

2장 현대 극단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와 함께 찾아온 극단주의/ 서양 강대국에 대한 반기/ 극단주의 세력 확장, 독일 나치의 탄생

3장 정치 극단주의

마티아스는 어떻게 나치를 추종하게 되었을까?/ 극우주의자는 누구일까?/ 독일의 극우주의자들/ 유럽의 극우주의자들/ 러시아의 극우주의자들/ 미국의 극우주의자들/ 극우 조직에서 탈출하기/ 생각해 보기: 극우주의자들은 왜 그럴까?/ 국가권력에 분노하는 알렉스/ 극좌주의자는 누구일까?/ 독일의 극좌주의자들/ 공산국가들의 극좌주의자들/ 독일 외 유럽 국가들의 극좌주의자들/ 극좌주의자들의 공통점/ 극좌 조직에서 탈출하기/ 유토피아로 가는 길/ 생각해 보기: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면?

4장 종교 극단주의

10대 소녀 린다가 IS로 가기까지/ 이슬람주의자는 누구일까?/ 코란을 입맛대로 해석하면/ 이슬람주의 단체에서의 탈퇴/ 이슬람주의 테러단체들/ IS에서 린다의 최후/ 또 다른 종교 극단주의/ 종교 극단주의에서 빠져나오면?/ 생각해 보기: 어떻게 종교가 극단적일 수 있을까?

5장 극단주의 대처법

극단주의자는 어떻게 알아볼까?/ 국가가 극단주의에 맞서 하는 일/ 시민교육이 필요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기: 안전이나? 자유나?

나오는 말 극단주의는 사회의 온도계

해제 우리가 만나는 극단주의는?_ 구정은, 《경향신문》 기자

작가 소개

지은이 안야 러임쉬셀 Anja Reumschüssel

1983년에 태어났다. 함부르크 언론인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마인츠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사회학, 신학을 공부했다. 프리랜스 기자로 일하며 《슈테른》,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의 다양한 잡지에 글을 쓰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나이지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살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옮긴이 김원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독문학을 전공,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전대학교 H-LAC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세계 신화 아틀라스』, 『젤프의 기만』 등이 있다.

그린이 이시내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잔소리 대신 책으로 토닥토닥』, 『선긋기의 기술』, 『울트라 소셜』 등에 그림을 그렸다. 위트를 잃지 않는 그림,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제 구정은

《경향신문》 기자. 분쟁과 테러와 재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다.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을 썼고, 『10년 후 세계사』, 『지구의 밥상』을 함께 썼으며,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 등을 옮겼다.